

메르스 총괄, 환자 발생 및 경유기관
전체 5개 시도 24개 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병원명 (노출장소)	기간	환자 발생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5.17, 5.20, 5.27~31	17명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응급실)	5.26	경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응급실)	5.27	경유
	강동구	365서울열린의원(외래)	5.17	1명
	중구	하나로의원(외래)	6.2	경유
	중구	윤창숙내과의원(외래)	6.4	경유
	성동구	성모가정의학과의원 (외래)	6.2, 6.4	경유
경기	평택시	평택성모병원	5.15~29	37명
	평택시	평택굿모닝병원	5.22~6.1	경유
	평택시	평택푸른병원	5.23	경유
	평택시	365연합의원	5.24, 5.31	경유
	평택시	박애병원	5.31	경유
	평택시	연세허브가정의학과	5.29	경유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	5.25~6.1	경유
	수원시	가톨릭성빈센트병원 (응급실)	5.27	경유
	부천시	메디힐의원(외래)	6.1, 6.3	경유
	부천시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6.3, 6.5	경유
	오산시	오산한국병원(외래)	5.22, 5.25	경유
충남	천안시	단국대이대부속병원	6.1~2	경유
	보령시	대전삼육오연합의원 (외래)	5.26	경유
	아산시	아산서울의원(외래)	5.12, 5.14, 5.15	1명
대전	서구	대청병원	5.22~30	3명
	서구	건양대병원(응급실, 10층)	5.28~30	5명
전북	순창군	최선영내과의원(외래)	6.4	경유

메르스 공포, 아웃도어 강타
블랙야크 희망나눔캠핑 등 업계 잇단 행사 취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웃도어 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다.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을 맞아 캠핑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던 아웃도어 업체들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블랙야크는 13~14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50가족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던 희망나눔캠핑 행사를 취소했다. 블랙야크는 이 캠핑의 참가비를 네팔 대지진 구호활동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블랙야크 마케팅본부 남윤주 팀장은 “고객들이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행사를 급히 취소했다”고 밝혔다.

밀레도 6~7일 청계산, 도봉산 입구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냉각 소재 제품 샘플링 행사를 취소했다. 밀레 역시 메르스가 빠르게 퍼지자 고객의 안전을 위해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사태가 진정되면 재개할 계획이다.

마운타인은 5일 전속모델 주원의 팬 사인회를 개최하며 추첨으로 선정한 100명의 고객에게 보건용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주원은 물론 고객 100여명과 현장 직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했다. 업체측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지원받은 열감지 체온계를 갖추고 고객들의 체온을 측정했다.

아웃도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캠핑, 산행 등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예외주의하고 있다”며 “이직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메르스 파장이 길어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김창훈 6단, 아바바둑 정상 도전

10일까지 태국서 세계아바바둑선수권대회

제36회 세계아바바둑선수권대회가 57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태국 방콕 몬티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7일 개막됐다. 이번 대회는 10일까지 하루 2경기씩 스위스리그 8라운드로 진행된다. 한국, 중국, 일본이 아닌 국가에서 세계아바바둑선수권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 우승후보는 한국의 김창훈 아바6단과 중국의 후아오와 아바6단, 일본의 히라오카 사토시 아바8단, 대만의 라이원후 아바7단이 꼽히고 있다. 한국기원 연구생인 김창훈은 현재 ‘2015 내셔널바둑리그’ 충북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선발전을 겸한 제48회 아바국수전에서 김창훈은 3위에 그쳤으나 1·2위인 송지훈과 홍무진에 프로입단을 해 대표가 되는 행운을 얻었다.

이 대회는 1979년 일본에서 시작했다. 중국이 19회로 최다 우승했으며, 일본이 8회, 한국이 6회 우승했다. 6명의 우승자 중 김찬우, 유재성, 이강욱, 최현재는 현재 프로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첸이티엔 아바7단이 우승해 처음으로 대만에 우승컵을 안겼다.

한편 6일 열린 개막식에는 한국기원 박치문 부총재·양재호 사무총장, 대회를 유치한 태국바둑협회 코삭 차이라스미삭 회장, 일본기원 와다 노리오 이사장, 국제바둑연맹 토마스 상·에드아르도 로페스 부회장, 전제만 주 태국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양형모 기자



싼타페 더 프라이미에는 유로6배출가스 규제를 만족시키는 친환경 고성능 e-VGT R엔진이 탑재됐으며, 운전석 및 동승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편의사양이 국산 SUV 최초로 적용됐다.

싼타페의 재탄생...더 야무지고 세련되게

현대차 ‘싼타페 더 프라이미’ 출시

초고장력 강판 사용비율 39%, 차체 보강 어드밴스드 에어백 장착 등 안전성 강화 헤드램프·범퍼 등에 신규 디자인도 적용

현대차의 대표 중형 SUV 싼타페가 디자인과 상품성을 대폭 강화해 ‘싼타페 더 프라이미(SANTAFE The Prime)’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부분변경 모델이지만 변화의 폭은 제법 크다. 특히 약점으로 지적됐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기아차 쏜렌토에 밀리고 있는 판매량에 반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싼타페는 1~5월까지 2만8500대, 올 뉴 쏜렌토는 3만1600대가 팔렸다. 싼타페 더 프라이미가 신형 쏜렌토를 넘어, 다시 국내 중형 SUV 시장의 절대강자 자리로 올라설 수 있을까? 주요 변화를 살펴봤다.

●차체 강성 보강, 능동적 안전사양 대거 채택

최근 자동차 구매자들은 안전성에 관심이 높다. 특히 가족들의 여가를 책임져야 하는 SUV의 경우 편의사양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구매의 핵심 포인트다. 싼타페는 신형 쏜렌토보다 안전성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싼타페는 지난해 미국 고속도로보험협회(IIHS)에서 진행한 종합평가에서 4개 등급 가운데 3번째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쏜렌토는 몇 달 전 같은 평가에서 전 항목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싼타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차체 보강재를 확대 적용하고 차체 구조를 개선했다. 초고장력 강판 사용 비율도 39%로 높였다. 미국 스몰



앞좌석

뒷좌석

버랩 테스트 최고 등급인 ‘우수(Good)’ 등급을 목표로 안전성을 대폭 개선했다는 것이 현대차측의 설명이다.

기본적인 차체 강화 외에도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대폭 보강했다. 충돌의 심각성에 따라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하여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고, 동승석에 유아시트를 사용하여 유아를 탑승시킬 때 안전을 위해 동승석 에어백을 미작동시키는 기능이 적용된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적용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아울러 앞 차의 속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돕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dvanced Smart Cruise Control)’ 등을 국산 SUV 최초로 적용했다.

이밖에도 전방의 위험 요소를 감지해 위급 상황 시 자동으로 비상제동되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차선 변경 시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하는 ‘스마트 후측방 경보시스템’,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과속위험 지역에서 자동으로 감속되도록 하는 ‘고속도로 안전운행 자동감속 기능’ 등의 안전사

양은 싼타페를 보다 안전한 차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

●디자인 및 편의 사양 보강으로 감성 만족 높여

싼타페 더 프라이미는 외관적인 변화도 뚜렷하다. 차량의 인상을 결정하는 헤드램프, 전후면 범퍼, 리어 콤포램프, 알로이 휠 등에 신규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LED 주간 주행등을 새롭게 추가해 세련미와 안전성을 더했다. 외장 컬러도 탠브라운, 초크베이지, 미네랄블루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내장 디자인도 바꿨다. 주요 부위의 페인트 재질을 변경하고 신규 패턴과 신공법이 적용된 크래쉬패드 가니쉬를 적용해 실내 고급감을 높였다.

운전자도 항상 보게 되는 계기판 디자인도 심플하게 개선했다. 글씨체와 아이콘도 운전자가 더욱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100만 화소 후방 카메라가 스티어링 휠 움직임에 따라 헤드램프가 움직이는 다이내믹 벤딩 라이트, 차량 주변을 360도 비추주는 아라운드 뷰 모니터링, 자동으로 스티

싼타페 더 프라이미 주요 제원			
구분	R2.0 엔진	R2.2 엔진	
전 장(mm)	4700		
전 폭(mm)	1880		
전 고(mm)	1680		
축 거(mm)	2700		
엔진	e-VGT R2.0	e-VGT R2.2	
배기량(cc)	1995	2199	
최고출력(ps)	186	202	
최대토크(kg·m)	41	45	
구동방식	2WD 4WD	2WD 4WD	
복합연비(km/l)	13.8 12.3	13.4(5인승) 11.9	
(18인치 기준)		12.8(7인승)	
복합연비(km/l)	13.1 11.7	12.8(5인승) 11.6	
(19인치 기준)		12.4(7인승)	

어링 휠이 제어되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조작만으로 편리한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 ‘어드밴스드 주차조향 보조시스템’ 등의 첨단사양도 적용되어 있다.

●주행 성능 및 감성도 대폭 개선

차체 강성이 높아지면 주행 안정성도 당연히 향상된다. 현대차 측은 기본적인 차체 강성 강화는 물론 흡차음재를 보강해 엔진 냉각시 진동, 공회전 진동과 로드노이즈도 줄여 보다 정숙한 승차감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엔진도 바꿨다. 유로6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시키는 친환경 고성능 e-VGT R엔진을 탑재했으며,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도 구간에서 가속응답성을 향상시켜 주행 성능도 소폭 개선했다.

싼타페 더 프라이미 R2.0모델 판매가격은 2WD모델이 2817만~3318만원, 4WD모델이 3195만~3528만원이다. R2.2모델 중 R2.2디젤 2WD모델은 3115만~3423만원, R2.2디젤 4WD 모델은 3325만~3633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폭스바겐코리아 “엔진오일 평생 서비스·무이자 할부”

법인 설립 10주년 맞아 파격 프로모션

‘평생 엔진 오일 서비스에 대표 차종 무이자 할부까지.’

폭스바겐코리아가 6월을 맞아 파격적인 프로모션 혜택을 내세우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로 법인 설립 10주년을 맞은 폭스바겐코리아는 전국 9개 공식딜러와 공동으로 6월 한 달간 폭스바겐 신차를 구매해 등록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엔진오일을 평생 무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평생 엔진오일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그간의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 고객들의 차량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6월30일까지 전국 35개 공식 전시장에서 폭스바겐 신차를 구매·등록하는 모든 고객들은 대표적인 차량 소모품인 엔진오일을 평생 무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파격적인 조건의 금융 프로모션도 함께



폭스바겐코리아는 6월 프로모션으로 골프(사진)를 포함 베스트셀러 11개 모델에 대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제공 | 폭스바겐코리아

진행된다. 폭스바겐의 베스트셀러 차종인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프리미엄, 골프 2.0 TDI 블루모션, CC 2.0 TDI 블루모션, CC 2.0 TDI R-Line 등을 포함한 11개 모델에 대해 무이자 할부(선납금 40%, 36개월 기준)혜택을 제공한다. 또 폴로 1.4 TDI R-Line, 골프 2.0 GTD, 제타 2.0 TDI,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등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대의 저금리 유예할부(선납금 30%, 36개월)도 실시한다.

폭스바겐코리아 토마스 쿨 사장은 “수입차의 차량 유지비가 높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차량유지에 있어 더 많은 고객들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기아차, 6월 하이브리드 판촉 이벤트

기아자동차(이하 기아)가 6월을 맞아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고객을 위한 다양한 판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친환경 박상’ 이벤트가 가장 눈에 띈다. 6월 K5 하이브리드 및 K7 하이브리드를 출고하는 고객에게 유가비 업체 매장방문 결제시 이용금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다. ‘더블 반값’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2.9%의 금리 및 차량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값 할부’와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정비, 세차, 하이패스 결제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반값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더블 반값 프로그램 선택 시 친환경 박상 이벤트는 적용되지 않음).

벤츠 악트로스 보증 만료차 대상 무상점검

다임러트럭코리아(이하 다임러)가 구동 계통 보증이 만료된 메르세데스-벤츠 악트로스(차령 4년 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6월8~7월31일까지 8주 동안 ‘나의 오랜 영웅 악트로스’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고객들은 메르세데스-벤츠 전국 15개 상용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무상 점검은 물론 구동 계통 및 일부 외장 부품에 대해 최대 25% 할인 혜택을 제공 받는다.